성도GL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기업과 예술의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

(주)성도GL(대표 김상래)이 지난 6월 2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와 문화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2007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2차 결연식'에 참석,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성도GL은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음악회 활동을 지원하고 파주에 성도아트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계획이다.

김상래(우) 성도GL 사장과 최만린 헤이리 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좌)이 결연을 상징하는 머플러를 교환하고 포옹하고 있다.

정기음악회 지원 · 성도아트센터 건립 등 기획

지금까지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결연식에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문화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총 12개의 중소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국고지원금이 예술단체에 추가로 제공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과 예술단체는 상생의 의미로 각각 결연 머플러를 교환했으며, 국악그룹 '공명'과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등이 피리 · 타악 협주, 현악 4중주 등의 축하연주를 담당했다.

한편, 김상래 성도GL 사장은 결연대표 인사말을 통해 "문화의 핵심 코드는 창의성, 상상력, 감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추구하는 창조경영과도 상통한다.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혹은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술혼을 통한 위대한 리더십은 많은 감동을 전달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기업문화와 고객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존 키워드"라며 "지난 1994년도에 한국메세나협의회가 발족, 상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의 문화지원 활동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문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 펀드'를 통해 문화관광부의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결연식을 통해 파주 헤이리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예술이 기업의 돈을 탐내고 기업은 문화를 이용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와 경제가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